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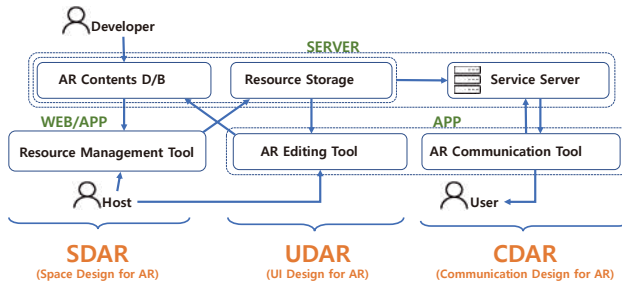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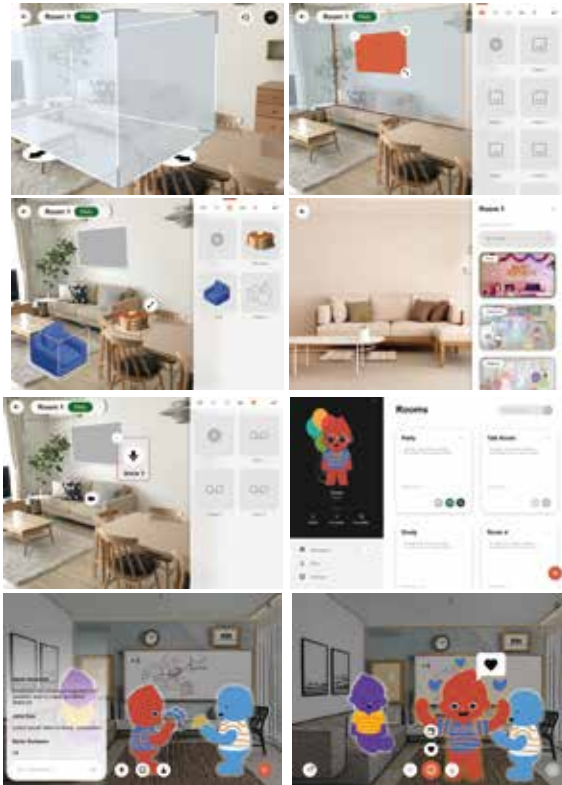
# MOAR

다중참여 AR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Multi-User Communication in AR

모아(MOAR : Multi-User Communication in AR)란 다중 사용자가 AR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한글로 '사람을 모으다' 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기존까지 AR기술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현실공간에 가상오브젝트를 띄우는 증강체험에만 국한하고 있을 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을 위한 매체로는 사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AR이란 VR과 달리 '열린 창' 으로서 현실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매체입니다. 모아(MOAR)는 AR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특징을 극대화시켜 사람과 사람이고 모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아룸(MOAR-Room)은 모아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중사용자가 자신의 공간에 친구를 초대하여 정보공유, 룸파티, 미니게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소셜게임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방에 원하는 가상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공간을 꾸밈으로써 특정 목적에 맞는 모아룸을 만들고 원하는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참여자는 자신의 방이 마치 초대된 친구 방에 있는 듯한 증강현실 체험을 하며, 하나의 모아룸에 모인 참여자들은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게임에 참여하거나 원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아솔루션은 현실장소와 가상오브젝트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AR기반 공간디자인 (SDAR),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AR기반 UI 디자인(UDAR), 사용자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AR기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DAR)으로 구성됩니다.



모아(某我)는 모아룸의 주인공 캐릭터로서 사용자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에 살고 있는 가신(家神)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성장하는 정령입니다. 모아룸에는 모아말고도 집안에 머무르거나 다른 공간으로 안내하는 다양한 정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無我之境

주식회사 크로스랩(Crosslab inc.)은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대학원 연구원들로 구성된 크로스디자인랩(2005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크로스랩의 cross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다양한 학문과 문화와 기술의 융합(3C : Cross-Disciplinary, Cultural, & Functional)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Cross-over에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혹은 한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間)를 의미합니다. 네덜란드 인류학자 반 헤네프에서 출발하여 빅터 터너에 의해 완성된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리미널(Liminal)은 Limen, 문지방을 뜻합니다. 이는 바깥과 안쪽을 이어주는 사이, 즉 역(逆)공간으로 이를 넘어가는 동안 인간은 죽지만 또한 태어납니다. 기존의 나는 사라지고 모든 지위와 사회적 상징에서 자유로운 상태, 날것 그대로의 나로 다시 태어나는 혼돈, 즉 무아지경의 순간입니다. 하이데거, 칙센트미하이 등 수많은 철학자들은 바로 리미널리티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되찾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크로스랩의 cross는 바로 리미널리티를 의미하며 기술과 예술,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무아지경의 경험을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 crosslab

주식회사 크로스랩(Crosslab)은 다중참여기반 AR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모아(MOAR)' 와 함께 다중참여형 AR소셜게임 모아룸(MOARoom)을 통해 시, 공간을 넘나드는 새롭고 즐거운 체험을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www.crosslabinc.com  
 www.crossdesignlab.com  
 T +82-2-828-7262 E artbysung@ssu.ac.kr